

‘광주 장애인복지 산실’ 종합지원센터 설립

오늘 창립총회...조례 제정·14명 인력 구성 4월 2일 개소 7만명 장애인 정책 컨트롤 타워...지원 업무 체계적 관리

광주시에 장애인 통합복지서비스를 총괄 지원하는 거점 허브센터가 설립된다. 광주시는 29일 “사단법인 광주시에 장애인종합지원센터의 창립총회 및 정기이사회가 30일 오후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이날 열리는 총회는 설립 추진 경과보고, 설립 취지를 담은 발기문 채택, 정관제정과 임원 구성 순으로 진행되고 올해 사업계획 등도 확정한다.

또 윤장현 광주시장, 이인춘 광주장애인연맹회장을 비롯한 장애인복지 관계

자 등 7명이 발기인으로 참석해 설립발기문을 채택한다. 또 운영 정관, 2018년도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예산, 사무소 설치, 기구조직 및 상근 임직원 정수 등도 심의·의결한다.

광주장애인종합지원센터 설립은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다. 그동안 광주에서는 장애인정책에 대한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수행할 기관의 설립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광주시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현재까지 광주복지재단 산하에 장애인지원

단을 운영하기도 했다. 이어 광주시는 지난해부터 장애인 기관 및 단체를 아우르고, 장애인 통합 복지정책 및 서비스 지원을 담당할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조성을 추진했다.

장애인종합지원센터의 주요 과제와 업무는 장애인 대표 콜센터 운영, 중장기적인 장애인 정책개발, 제도개선 사항 발굴, 저상버스 등 정보 앱 서비스 구축 등이다. 장애인 단체와 지도자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시설 및 재가(在家)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확대,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개발과 지원 사업도 맡는다.

이를 위해 조만간 관련 조례 제정과 상임이사(센터장), 사무처장, 3팀(정책·기획

팀, 교육·홍보팀, 자립생활 전환지원팀) 등 14명으로 인력 구성을 한 뒤 4월 2일(잠정) 문을 열 계획이다. 또 광주시공무원교육원에 임시 사무실을 마련하고 장애인 접근성 등을 고려해 추후 적절한 사무실을 확보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장애인 관련 정책과 지원 업무가 중복·유사한 경우도 많아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컸다”며 “장애인 단체의 기능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에 등록된 장애인은 지체 3만 1600여명 등 모두 6만9187명이며 각종 사회복지법인인 66곳, 거주나 재활시설 등은 154곳이 운영 중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도시철도 2호선 공사 지역건설업체 참여 늘린다

市·건설협 상생발전 간담회 지역노동자 참여 방안도 모색

광주시에 올해 상반기 내 착공을 앞두고 있는 도시철도 2호선 공사와 관련, 지역건설업체와 상생방안을 모색했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은 1994년부터 시작한 공론화 과정에서 타당성이 이미 입증됐으며, 윤장현 광주시장의 취임 초기에도 수차례 공론화를 통해 오는 3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앞두고 있다.

이에 광주시가 총사업비 2조579억원에 달하는 도시철도 2호선 공사 과정에 지역건설업체가 혜택을 입고, 지역 건설노동자들도 더 많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열고 있다.

광주시는 29일 대한건설협회 광주시지회 등 지역 건설단체 관계자 등과 광주시청에서 ‘명품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위한 상생발전 간담회’를 하고 추진현황 설명과 함께 애로사항 등을 들었다.

또 사업계획 승인과 총사업비 협의 등을 거쳐 상반기 중으로 1단계 우선 시공 구간부터 착공한다. 이 구간은 서구 운

천저수지에서 서구 문화센터 4거리까지 2.89km 구간이다.

현재 지역 건설업체들은 “단독참여도 가능하지만 종합 심사평가제 최고 득점자가 낙찰자로 결정되기 때문에 대형건설업체와 공동도급으로만 참여가 가능한 실정”이라며 “공구별 분할 발주 및 49% 이상 지역 의무 공동도급 발주할 것” 등을 광주시에 건의한 상태다.

또 건설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지역업체와 지역노동자(장비)를 우선 고용협약 체결하고, 모든 공사와 관련 ‘노사-정 분기별 간담회’를 통해 노사 상생 고용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광주시는 단계별 공구 분할발주와 지역공동도급의무화 등 지역 업체에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원도급업체가 선정되면 협의를 통해 지역 건설업체 참여비율을 늘리기 위한 양해각서 체결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광주시는 이 지역 기능훈련학교 졸업생이 무료취업센터 등을 통해 도시철도 2호선 공사 현장에 취업하는 조직적 시스템 마련 등도 고려하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무등산에 케이블카 추진단체 설치 촉구 환경단체 강력 반발

국립공원 무등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지는 주장이 제기돼 환경단체 등이 반발하고 있다.

가칭 ‘무등산 자연환경 보전 케이블카 설치 범시민운동본부’는 29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무등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 추진을 요구했다.

운동본부는 “자연 훼손 면적이 작고 소음·배기 등에 의한 환경파괴가 거의 없는 친환경 이동수단”이라고 주장했다.

또 “친환경 공법을 이용해 자연 훼손을 최소화한다면 무등산 케이블카는 환경도 지키면서 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운동본부는 오는 31일 무등산 케이블카 설치 발기인대회를 열고 이를 위한 공청회, 여론조사, 서명운동을 할 계획이다.

하지만 반대 여론이 큰 데다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추진하고 있는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 전망이 지배적이다.

광주·전남녹색연합 박경의 사무국장 “국립공원 목적 자체가 생물 다양성을 확보하고 자연 보존 공간으로서 지정하는 것인데 무분별 개발을 한다는 접근 자체가 우려스럽다”면서 “공사나 공사 후 이용하는 과정에서 수달 등 야생동물 피해가 예상된다”고 반발했다.

/오광록기자 kroh@



29일 오전 광주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광주시 주요 실·국장, 유관 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대선공약 및 국비사업 추진 보고회'가 진행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광주시 내년도 국비확보 시동 걸었다

국비사업 추진 보고회 217건 2조여원 규모 논의 4월까지 최종 사업 확정

광주시가 2019년 국비 확보를 위해 오는 4월까지 국비지원 요청 사업을 확정하기로 했다. 향후 2개월간 신규 사업을 집중 발굴하고, 계속 사업의 조기 완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시는 29일 윤장현 시장 주재로 2019년도 대선공약 및 국비사업 추진 보고회를 갖고 신규 국비사업 58건 1210억원, 계속 사업 159건 2조1509억원 등 총 217건 2조2719억원 규모의 내년도 국비 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시는 문제인 정부의 공약

및 국정과제에 반영된 지역 사업들의 추진을 위해서는 내년도 국비 확보가 반드시 전제돼야 할 것으로 보고 신규사업 발굴, 계속사업의 조속 추진, 대형 프로젝트 개발 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우선 친환경자동차, 에너지저장산업, 문화콘텐츠융합 등 3대 벨리를 비롯한 광주의 미래비전이 담겨 있는 대통령 광주공약과 관련된 24개의 단위사업을 34개로 세분화했다. 소관부처 지정, 법령 제개정·예비타당성 절차 등을 통해 재분류한 것이다.

신규사업에는 대선공약 및 국정과제와 연계된 15건 564억원이, 대규모 신규 SOC 사업에는 ▲광주~대구 동서내륙철도 건설 ▲첨단3지구 진입도로 개설 ▲광주대촌~나주 급전간 도로확장 등이 각각 포함됐다.

시는 보고회를 계기로 전문가 그룹,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별도의 팀을 구성할 예정이다. 이 팀은 ‘더불어 사는 광주’ 건설을 위한 신규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예비타당성조사,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심의, 투자심사 등 국비지원 사전 절차 이행에 있어서 시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윤 시장은 “미래 먹거리,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양분이 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중장기 사업들을 집중 발굴해야 한다”며 “정부의 국정기조 및 부처동향과 연계한 양질의 국비지원 사업 발굴과 차별화된 대응노리 등을 개발해야만 결실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1조9743억원의 국비 예산을 확보한 바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이승욱 前전남도 행정국장 강진군수 출마 선언

이승욱(사진)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농산물유통특별위원장이 6·13지방선거 강진군수 출마를 선언했다.

이 위원장은 29일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35년간 공직 경력을 바탕으로 ‘더불어 행복한 강진’을 만드는 데 남은 여정을 바치겠다”며 “일자리 창출을 균형 최우선 정책으로 삼고, 임기 내 강진산단에서 공직을 시작해 전남도 행정자치국장, 문화관광국장, 여수 부시장을 지냈다.”

이 위원장은 “춧발 정신으로 새 정부

가 들어선 만큼 강진도 새 정치에 맞는 새 인물이 필요하다”며 “시대정신에 걸맞게 정직과 공정, 소통으로 국민 주인시대를 열겠다”고 다짐했다.

이 위원장은 강진군에서 공직을 시작해 전남도 행정자치국장, 문화관광국장, 여수 부시장을 지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산구의회 김동권 의원 중소기업 육성 조례안 발의

광주 광산구의회가 기업하기 편한 환경 조성을 위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추진해 기대를 모으고 있다.

광산구의회 김동권(나선거구·사진) 의원은 제235회 임시회에 ‘광산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광산구를 기업하기 편한 환경으로 조성해 중소기업 육성에 힘을 보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 조례안을 추진했다. 이 조례안은 중소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계획 및 사업추진 ▲경비지원 ▲제품홍보 및

판로개척 ▲기술과 인력양성 ▲우수기업 및 모범근로자 지원 ▲기업유치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조례를 추진했다”며 “조례 제정으로 광산구 지역 기업의 왕성한 경제활동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승렬기자 srchoi@





착한보청기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광주 남구 진월동 252-4 우리은행건물 3층)

정부지원 농·어촌 태양광 사업안내

에너지관리공단 **5년거치 10년상환, 년 1.75%가능**

농협 **90% 융자지원사업 / 선착순 접수**

연금발전소



노후에는 태양광이 효자!!

- ▶ 정부에서 보장하는 안정적 투자
- ▶ 99KW설치시 연금처럼 월250만원 고박고박 (25년동안 년평균 3,000만원)

▶ 실제 농·어업인에 한함(축산업 종사자 우선접수 합니다)
▶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1년이상 되어 있으신 분

▶ 땅만 빌려주셔도 임대료를 선불로 드립니다 (5,000평 이상)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NAVER 해가온에너지 검색

100년 기업 **해가온에너지**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기술이사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음로 166 해가온빌딩 1~5층